

회장님 인사말씀



지난 해 올림픽의 성공적인 유치를 통해서 가히 제 2의 산업혁명이라 할 수 있는 정보통신혁명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정보화 사회로의 도약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고, 그것을 근간으로 하여 세계속의 우리의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도 정보화 사회의 조기 실현이라는 명제 아래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보기기에 대한 인식을 일반화시키기 위한 컴퓨터교육의 의무화, 정보활용을 대중화하고 정보 전달 매체의 효용가치를 증대하기 위한 일환으로써의 공중통신망 서비스의 개방, 정보기기관련산업의 국가정책적인 차원에서의 육성을 통한 다양한 정보기기의 보급, 국방, 행정, 교육분야 등에서 정보의 생산, 축적과 공동 이용 등에서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간 전산망의 구축, 그리고 특히 앞으로의 정보화사회에서 핵심이 될 수 있는 정보 전달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보통신에 관련된 분야에 대한 기업, 연구소와 학계에서의 부단하고 활발한 연구 활동등이 고도 정보화 사회의 조기 구축을 위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의 변화를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들어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신경망(Neural Networks) 시스템 개념과 ASIC(Application for Specific Integrated Circuits) 개념 등은 정보통신분야에서의 여러 계층 종사자에게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도 앞으로의 고도 정보화사회를 조기 구축하는데 있어서 고도 기술분야가 맞이하고 있는 기술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는 개인용 컴퓨터(PC) 간의 정보통신을 위한 PC통신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표준화작업, 정보화사회에서의 근간통신 매체인 종합정보 통신망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반 기술조성, 사무용 기기간의 접속을 위한 인터페이스 개발(예를들면 PC-FAX 시스템) 여러 환경에서의 자동화시스템구현 등 정보통신에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정책적인 단계에서 앞으로의 고도 정보화 사회의 조기실현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에 적응하고 정보화 사회의 기수로서 사회에 기여코자 본 학회지는 앞으로 특집으로 엮어서 TDX-1B, 데이터통신, 광통신, 이동통신 등을 중점적으로 소개코자합니다. 회원께서는 더욱 학회 발전을 위하여 심도있게 논의하여주시고 고견을 들려주시므로써 본 학회지가 세계적인 기술지도 부상될 수 있도록 기여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회원 여러분 모두에게 행운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1989년 3월 31일

한국통신학회

회장 康 昌 彦